

PVC, 일본 트러블로 30달러 급등!

CFR FE Asia 580-600달러 형성 ... 일본은 VCM 공급도 중단상태

PVC 가격은 6월13일 30달러 급등한 CFR FE Asia 톤당 580-600달러를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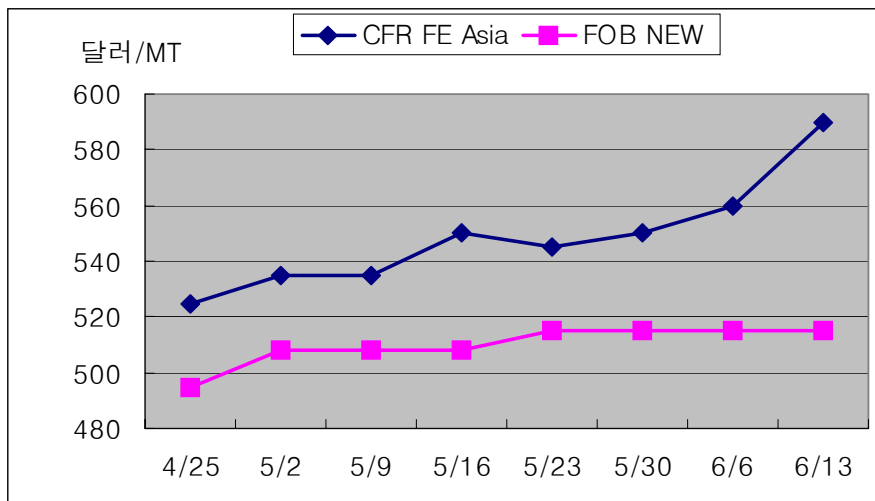
아시아 PVC 가격상승은 전주의 에틸렌 가격급등 영향에 일본과 중국의 PVC 플랜트 트러블로 인한 가동중단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수급타이트로 내수가격이 200元 상승한 ex-works 톤당 6400元을 기록해 수입가격 기준 CFR 톤당 580달러를 형성했다. 중국 내수시장의 6월 거래물량 구매가격은 톤당 580달러 이하에 형성됐다.

일본은 6월 VCM 가격이 CFR China 500달러에 거래됐고 일부에서는 520달러로 인상했으나 가격이 대폭 인상될 때까지 VCM 공급을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 일본의 VCM 생산기업들은 CFR China 톤당 620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VCM 공급가격은 CFR China 톤당 625달러를 나타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타이의 한 VCM 생산기업이 CFR China 톤당 600달러에 공급했으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약간 낮은 가격에 공급한 것이다. 타이의 PVC 가격은 CFR 톤당 580달러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PVC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PVC 가격은 가격변동 없이 FOB NWE 톤당 505-525달러를 형성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17>